

LPG, 7월 판매가격 70원 인상

SK가스, 프로판 1315원에 부탄 1685원 ... E1은 1313원에 1685원

가스업체가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가격을 6월에 이어 7월에도 인상했다.

7월1일 가스업체에 따르면, LPG를 수입해 국내 공급하는 SK가스와 E1 등은 7월 LPG공급가격을 kg당 70원 안팎 올렸다.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kg당 62원 오른 1315원에, 부탄가스는 74원 오른 1685원에 7월2일부터 각 충전소에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E1은 프로판가스는 62원 인상된 1313원으로, 부탄가스는 69원 오른 1685원으로 올렸다.

가스 수입기업은 국내 LPG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인 Saudi Aramco의 6월 LPG 기간계약가격(CP)이 톤당 부탄가스는 920달러, 프로판가스는 895달러로 결정되는 등 5월에 비해 톤당 부탄가스는 60달러, 프로판가스는 50달러가 올라 국내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입원유를 정제해 LPG를 제조해 국내 공급하는 GS칼텍스는 6월30일 프로판가스는 62원 오른 1294원으로, 부탄가스는 74원 오른 1681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리터단위로 판매하는 충전소 차량용 부탄가스 가격이 6월 처음으로 1000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7월에도 계속 1000원대 가격수준을 유지하게 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등 LPG 자동차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연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LPG 가격은 Saudi Aramco에서 매월 말에 다음달 적용될 LPG 기간계약가격을 통보하면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LPG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수입기업인 SK가스와 E1이 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가스 수입기업은 6월에도 LPG 공급가격을 크게 올렸었다.

6월 SK가스는 프로판가스는 1253원으로 140원(12.6%), 부탄가스는 1611원으로 137원(9.2%) 인상했었고 E1은 프로판가스는 138원(12.4%) 오른 1251원으로, 부탄가스는 134원(9.1%) 오른 11616원으로 공급가격을 올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02>